

# ESCO사업의 새 장을 연다!

신축건물 ESCO사업 · 원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 이대경 기자 (ak07@energycenter.co.kr)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주)금강종합건설**이 최근 ESCO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에너지절약사업에 들어갔다. 국내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축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금강종합건설은 건설업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ESCO사업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SCO사업부의 이운조 이사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10년 안에 건물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길은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자재 사용시 기존 자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ESCO와 적용시켜 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1993년 설립된 (주)금강종합건설(대표 하규복)은 건설업체에서 신뢰감이 앞선 업체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전문건설 기업이다. 그런 이 회사가 지난 2월 ESCO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절감사업에 나섰다. 건설업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물냉난방 및 건물 개보수 분야 ESCO 사업으로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칠 금강종합건설은 무엇보다 ESCO사업 신축건물의 적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운조 이사는 “건축물의 경우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기자재, 전기 및 기계설비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여서 신축건물 ESCO사업이 정착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절감형 자재 사용 유도할 방침

금강종합건설이 ESCO에 등록한지는 한달여 남짓. 그러나 이미 총 38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추천을 받은 상태이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충남 서산 등에 에너지절감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에너지절감형으로 설계되어진 이 건물들은 기초소재에서부터 마감재, 냉난방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자재를 에너지절감형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적용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이 건물이 완성되는 올 10월 경이면 ESCO 사업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ESCO사업은 기존 건물의 개보수 쪽으로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사업에서 벗어나 건물을 짓기 전부터 에너지절감을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없고 사용하는 중간에 절약설비로 교체하려면 아무래도 최상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 에너지절감형 자재 사용 유도할 방침

현재 금강종합건설은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과 최신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사용 진단, 설계에서 유지보수 및 관련교육 등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짓는 모든 건물에 ESCO를 활용, 신축건물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설계단계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절감형 건물설계기준 및 평가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 무조건 짓는 대신 에너지고효율화 건축 경기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 이운조 이사의 생각이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10년 안에 건물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길은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자재 사용시 기존 자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ESCO와 적용시켜 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내에너지소비량의 25%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 경기는 더 이상 건물을 짓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에너지효율이 더 잘되는 건물을 짓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그게 바로 에너지저소비형 국가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에너지절감형 건물을 짓는 붐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금강종합건설. ESCO사업에 새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